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원 확정

110억원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 지원

3,400여 명



380억원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학교 방역 및 예방 수칙 준수 지도

1만여 명



487억원
온라인 튜터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 대상 학습지도 및 상담인력

4,000명(전액 국고)



419억원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대학 비대면 강의 콘텐츠 제작 등 지원 인력

3,000명



250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대학생 1만 명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안전한 학습환경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교육부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04 네 꿈을 펼쳐라
전남 문태고 안전동아리 '안전지킴이'
"아따 그라제! 안전이 최고제!"

12 교육포커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해법은?

22 교실혁명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기다림과 어울림의 가온해 통합체육

42 정책을 말하다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유대학 체계 구축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교육부

더 깨끗하고 투명한 사립유치원 만들기 대작전









CONTENTS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65 **2021 APRIL**

12
교육포커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해법은?
최근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폭로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최근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하며 근절 방법을 논의해보고, 이와 함께 오랜 기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및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학교폭력 실태와 해결 방향
학교폭력의 피해자들,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까



27
특별기획
고교교육의 혁신, 고교학점제
교육계 안팎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있다.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현재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마이스터고의 운영 사례,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학생, 선생님들의 생각 등을 들어봤다.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고교학점제
"원하는 과목 골라 들으며 진로 그려나가요"
고교혁신을 위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CONTENTS

04
vol.465 **2021** **APRIL**



"사이버폭력, 너에겐 가면, 나에겐 감옥" "안전띠, 선택이 아닌 필수"
전남 문태고등학교 안전동아리 '안전지킴이' 학생들이 학교 7대 안전을 주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안전한 학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발행일 2021년 4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신문규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임용빈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강미진
편집장 이순이
기 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객원)강지영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 교육포커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해법은?
학교폭력 실태와 해결 방향
학교폭력의 피해자들,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까

27 특별기획
고교교육의 혁신, 고교학점제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고교학점제
"원하는 과목 골라 들으며 진로 그려나가요"
고교혁신을 위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04 **네 꿈을 펼쳐라**
전남 문태고 안전동아리 안전지킴이
"아따 그라제! 안전이 최고제!"

07 **꿈이 영그는 현장**
인천과학고등학교
매년 이공계 진학률 94% 이상, 창의과학인재 양성

18 **삶과 교육**
대구 능인중학교 교사 김한수
교실 밖 일상 속의 인성교육 꽃피우다

22 **교실혁명**
기다림과 어울림의 가온해 통합체육

39 **교육자치시대**
광주광역시교육청_ 창의융합교육원
체험하고 탐구하며… 미래인재 기르는 교육 공간

42 **정책을 말하다**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유대학 체계 구축



46 **교육웹툰**
조금 느려도 괜찮아, 우리 함께 배우자~

48 **이달의 교육뉴스**
올해 수능 11월 18일 실시, EBS 연계 50%로 축소 外

50 **진로직업인**
신재생에너지 전문가_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휴대용 수력발전기'로 에너지 프로슈머를 꿈꾸다

54 **일상의 쉼표**
시간의 자수가 교차하는 땅, 평창

58 **이야기 인문학**
장애에 가려진 예술가를 기르는 교육

61 **명예기자 리포트**
2021년 <행복한 교육> 온라인 명예기자 위촉식 개최 外

64 **숫자로 읽는 교육**
1998년

전남 문태고 안전동아리 안전지킴이

“아따 그라제! 안전이 최고제!”

학교 안전교육은 과하면 과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진로와 연결짓지 않더라도 체험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째 활동하며 문태고 안전지킴이를 자처하는 안전동아리 학생들을 만났다.

글 _ 이순이 편집장



안전지킴이

우리 학교 7대 안전지킴이 출동!

문태고 안전동아리 ‘안전지킴이’는 학교 7대 안전영역인 △교통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약물·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폭력·신변안전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해석하여 각종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올바른 안전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먼저, ‘안전지킴이’의 출발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방관’을 꿈꾸는 학생들에 의해 ‘소방동아리’로 출발했으나, 이후 좀 더 확장하여 인간의 삶과 건강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동아리로의 전환을 꾀했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안전동아리 ‘안전지킴이’로 재탄생했다. 현재 새로 가입한 1학년(8명)을 포함하여 22명이 활동 중이다.

문태고 안전지킴이는 다양한 활동과 성과로 인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명주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하게 전개한 결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간호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응급구조학과 등에 모두 합격하였고, 신입생을 모집할 때도 그 경쟁이 타 동아리에 비해 단연 압도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 프로젝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지킴이 학생들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 ‘우리 마을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학생들은 지역 내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전남서부지사)와 연계하여 전기안전과 관련한 그림을 담장에 그려 나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겐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 실천한다는 뿌듯함과 함께 생전 처음 벽화를 그려 완성해냈다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와 연합하여 ‘로드페인팅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로드페인팅 프로젝트’는 학교 7대 안전영역 중 교통안전과 관련이 깊다. 안전지킴이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생, 중학생과 한마음으로 원팀이 되어 마을 곳곳을 누비며 횡단보도에 보행 3원칙 등 안전 문구를 글자판을 이용해 락카로 페인팅을 진행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은 열렬히 응원하고 격려해주었다.

학교 안전을 몸으로 익힌다

학교 안전동아리의 최대 장점은 생활에 필요한


1


2

1 우리 마을 안전 벽화그리기
2 심폐소생술 훈련

안전지식을 몸으로 체득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지킴이 학생들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지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훈련을 받기도 했다.

안전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험하고 안전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특강도 이뤄졌다. 안전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김정완 학생은 "안전교육을 통해 진로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동아리"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서울보라매병원병동 근무 간호사를 초청, 간호사가 되는 방법, 병원의 이해 등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가를 초청해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안전에 대해 배웠다. 그 밖에도 각 분야 안전전문가를 초청해 학교폭력예방교육(경찰관), 의약품사용안전교육(약사), 지진·지진해일·화산이해교육(기상청), 전기안전교육(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비대면 활동도 이뤄졌다. 대구·경북을 지원하는 '1339 국민 성금'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도 이어졌다.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은 줄었지만, 학생들의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켰다.

안전한 학교생활,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문태고 안전지킴이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

<행복한 교육>에서는 3월호부터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열정과 도전을 지면에 소개합니다. 열정 넘치는 청소년 동아리를 알고 계신 분은 편집실(02-2271-0992/eduzine21@gmail.com)로 제보해 주세요. 행복한 교육에서 찾아가겠습니다.

Mini Talk



김정완 3학년

요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SNS를 이용한 학교폭력이나 선을 넘는 악플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2010년 한일 간에 벌어진 삼일절 사이버공격사건(경인대첩)에 동참한 적이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해결하는 '사이버수사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C언어, 자바 등 컴퓨터 언어도 따로 공부하고 있어요.

박지은 3학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꿈이에요. 과거 사건의 개요를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복역을 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접하면서 죄 없는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찾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어요.



최승희 2학년

보건선생님을 초청해서 심폐소생술을 배웠어요. 흉부 압박 30회,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면서 4분 동안 진행하는데, 1분 하는 것도 무척 힘들었어요. 간호사를 꿈꾸는 저에게는 무척 의미 있는 활동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책임감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박예연 2학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간호사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간호사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추고 인류를 위해 봉사를 실천하는 직업이라는 생각해요. 저는 이런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친절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세현 3학년

우리 학교 안전동아리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인기동아리예요. 저는 홍보마케터가 꿈이지만 안전은 모든 생활의 기본이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심폐소생술을 경험한 것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서한솔 3학년



저는 유치원교사를 꿈꿨는데, 작년부터 우리 학교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산업 안전에 관해 관심이 생겼어요. 지진 등의 재난안전을 비롯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용빈 2학년

저는 억울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을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싶어요. 3월 24일에 학교 정문 앞에서 문태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했어요. 학교 안전도 책임지고 사회정의도 실현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인천과학고등학교

매년 이공계 진학률 94% 이상, 창의과학인재 양성

글 _ 이경화 명예기자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이날은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과학 기술 유공자를 표창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날이다. 급격하게 달라지는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학 기술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 이 때문에 과학고와 과학영재고는 미래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과학고 졸업생 중 15%가 타 학부로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이공계 진학률이 높다는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과학고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졸업생 76명 중 72명(94.7%)이 이공계로 진학한 인천과학고등학교(교장 이용우)는 단연 눈에 띈다.



이용우 교장은 “과학고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입학전형에서부터 이공계 진학에 대한 꿈과 열정이 없으면 지원하지 말 것을 명기했다.”라고 설명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자리한 인천과학고는 인천국제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 및 인천학생과학관, 인천시교육청 연수원과 한 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최첨단 기기를 보유한 건물 세 동, 기숙사, 급식센터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과학인재 양성의 산실이지만, 1994년 개교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곳에서 교사로 있었던 이용우 교장과 김중철 교감은 2000년 영종대교가 개통되기 전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배를 타고 등교하던 시절을 전했다. 김중철 교감은 “날씨가 궂으면 제시간에 배가 뜨지 않아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며 “우리 학생들은 해양훈련도 했다.”라고 추억했다. 정태희 교무부장은 “인천과학고는 인근 학교들 중에서도 역사가 깊다.”라며 이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천과학고 출신을 ‘인곽인’으로 부르는데, 학생들은 매년 해외탐방이나 국내 대학 탐방을 통해 인곽인 선배들을 만남으로써 더 큰 꿈을 키워 왔다.”라고 설명했다.

과정중심의 미래교육

“발표시간은 각 조마다 5분씩”

“선생님, 1분만 더 시간 주세요.”

“저희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컴퓨터가 이미지 자료를 인식하는 것은 벡터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선형대수학에서 벡터는 요소들의 집합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벡터와 행렬, 선형대수학이 난무하는 이곳은 인천과학고 2학년 4반 교실, 수학Ⅱ 수업 시간이다. 과학 기술 전문가들이 AI(인공지능)시대에 AI 기술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으로 꼽은 벡터와 행렬이지만,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수포자’를 양산한다며 벡터 교과과정 일부가 필수과목에서 제외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인천과학고 교정에서는 2학년 과정에서 벡터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수업이 한창이다.

일반적인 교수법처럼 교사가 수업한 뒤 학생들이 질문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꾸로 교수법이라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접목한 수업이다. 플립러닝은 학생들이 미리 온라인으로 기본개념을 숙지해 오면 이를 토대로 토의, 토론, 실습, 프로젝트, 문제해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의 토대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인천과학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로 선정됐다. 이번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획되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비대면 학습, 플립러닝,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과정 중심의 교육혁신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과학고에서는 ‘수 과학 역량 강화 및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곽 FUTURE 스쿨 모형 개발’을 주제로 선도학교에 지정됐다. 이용우 교장은 “선생님들의 열정 속에 다양한 교육혁신 모델을 개발해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1 인천과학고 2학년 4반 교실의 수학Ⅱ 수업 시간. 벡터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수업이 한창이다.

2 3 인천과학고에서는 플립러닝을 접목한 수업으로 학생들이 미리 온라인으로 기본개념을 숙지해 오면 이를 토대로 토의, 토론, 실습, 프로젝트, 문제해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4 5
학생들은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실험, 실습, 탐구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

'자주, 창의, 덕성' 인천과학고의 교훈이다. 신관 증축 전에는 본관, 후관으로 나뉘어졌다면 이제는 자주동, 창의동, 덕성동으로 각 건물은 이름을 부여받았다. 이용우 교장은 "신입생은 덕성동에서 공부하면서 덕성을 키우고, 2학년 때는 창의동에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창의적으로 진행하고, 3학년이 주로 생활하게 될 신관 자주동은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인생과 세상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장은 "신관 증축을 적극 추진한 덕분에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에 효과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덕성동에는 중정을 지나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지구과학실, 편광현미경실, 주사전자현미경실, 3D프린터로 창작이 가능한 무한 상상실, 공작실 및 천문대, 독서카페, 역사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창의동은 각 층마다 화학계열, 물리계열, 생물계열 등으로 나눠 일반실험실에서 심화실험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풍동실험실, 초고속카메라 촬영실, 적외선 카메라실 등 30개에 달하는 특별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실험, 실습, 탐구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목별 세미나실도 마련해 학생들의 R&E(Research & Education)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하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대학 교수진 및 연구소의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물리, 지구과학, 생물 등 분야별 학술동아리와 농구반, 밴드반, 연극반 등 취미동아리, 올림피아드 및 각종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동아리, 도서, 정보, 종교, 봉사, 환경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것도 인상 깊다.

정보 전공인 이예빈(2학년) 학생은 "모두들 동아리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다."라며 "3D프린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축제나 학술제 등 학교 행사가 많이 취소되어 아쉽다."라고 말했다. 밴드 동아리 '차랑'의 기타리스트인 임종민(2학년) 학생은 "기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리와 관련된 물리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태희 교무부장은 "재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진로 관련 학술동아리 1개, 취미동아리 1개를 활동하도록 한다."라며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도 기르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창의적인 과학인' 학교 입구에 세워진 커다란 암석에 쓰여 있는 문구다.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한 인천과학고에 어울리는 우직함이 느껴진다. 학생이 자유롭고 교사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인천과학고의 하루를 엿보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이 멀지 않았음을 기대하게 된다.

Mini Interview

이용우 교장선생님



Q1 __ 다목적 강당 건물 증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7년 9월 교장 임기를 여기서 시작했다. 이곳에서 교사 생활을 한 후 1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교실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소프트웨어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연구하기 편안한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의 지원으로 8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축할 수 있었다.

Q2 __ 인천과학고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기보치원(驥步緻遠)',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음에 새긴다. 학생들에게는 바른 인성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리더가 되기를 늘 강조한다. 인천과학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 속에서 재능을 키워 앞으로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기를 바란다.

권상순 교사

수학 II 담당



Q 인천과학고 학생들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2017년 이곳에 왔지만, 그전에도 특목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교마다 확연하게 학생들의 스타일이 다르다.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계열에 따른 특성이 더 도드라진다. 인천과학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수업할 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어려운 수업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선생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곳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하고 있다.

강찬영 학생

2학년

Q1 __ 인천과학고에서의 생활은 어떤가?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분위기가 가장 좋다. R&E, 전람회 활동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신다.

Q2 __ 앞으로의 계획은?

그레고리 페렐만이라는 수학자가 롤모델이다. 난제를 풀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상금을 거부하고 순수하게 수학을 좋아하는 점, 학문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점을 본받고 싶다. 원래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을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과학고에 진학했다. 앞으로도 자연과학 쪽 정통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Q3 __ 과학고 진학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과학고는 과학이나 수학 연구에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학우들과 함께 하는 연구 활동에 무임승차는 없다. 선행학습보다 학문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든 적극적이고 깊이 생각하는 탐구 정신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실태와 해결 방향

글 _ 문용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근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폭로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최근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하며 근절 방법을 논의해보고, 이와 함께 오랜 기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및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최대의 악이다. 같은 또래로부터 놀림받고, 따돌림 당하며, 얻어맞고, 공포에 질려 돈과 물건을 상납해야 하는 일은 강도나 어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래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치욕과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또래로부터의 폭력은 '내가 못나서 당한다'라는 자책감이 앞서고, '내가 약해서 당한다'라는 치욕감이 압도한다. 그래서 어른들(부모, 교사, 경찰)에게 신고하기가 어렵다. 강도나 폭력배에게 얻어맞고 자살하는 청소년은 없으나, 동급생에게 폭력을 당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은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치욕과 자책을 불러일으켜, 자기 존재에 대한 모멸감을 부추긴다. 이렇게 자존심을 상한 청소년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매년 학교폭력 관련 학생 수 최대 25만 명

청소년들의 행복파괴의 주범인 학교폭력의 실태는 어떨까? 푸른나무재단의 2020년도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평균적으로 조사대상자의 6.7%가 학교폭력 피해자이며, 4.1%가 가해자였다. 주변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도 7.0%였다. 이 수치들은 2019년도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초중고 전체 학생 중에서 약 4~7% 내외의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다. 학교폭력의 발생이 빈발한 학생들(초3~고2)을 대략 360만 명으로 보면 매년 학교폭력 관련 학생 수는 14만~25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학교폭력으로 불행을 겪고 있는 학생 수인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32.1%), SNS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16.3%), 따돌림(13.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중 사이버폭력의 증가세는 현저하다. 작년 대비 9.0%p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증가한 까닭도 있겠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 및 사용 연령의 하향에 기인한 탓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향후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의 대세로 자리 잡을 듯하다.

학교폭력을 당하고 난 후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부모의 도움(25%)을 받았다는 학생과 선생님의 도움(24.2%)을 받았다는 학생들이 비슷하게 많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견디어 내고 있다'는 학생도 18.8%나 되었다. 결국 피해자로 방치되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1/5가량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럼 가해자는 어떨까? '선생님한테 혼났다'가 24.3%,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21.5%, '부모님한테 혼났다' 18.2%의 순서였는데,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는 가해자가 1/5을 넘는데, 놀라운 일이다. 학교폭력 가해 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니, 이런 가해자의 학교폭력은 2차, 3차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목격자들은 어땠을까? 학교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폭력과는 달리 중인환시(衆人環視: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봄)리에 벌어진다는 것이다. 청소년 가해자의 과시욕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에는 목격자가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중 '모른 척했다'가 26.7%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렸다'가 18.8%였다. 결국 20% 내외의 학생만이 신고를 했고, 30% 가까운 학생들은 방관하면서 '모른 척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까

글 _ 박종석 연세봄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최근 유명 프로 배구선수들이 학교폭력으로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것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연예인들까지 구설수에 올랐다. 트라우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고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서 몇 년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악몽을 꾸면서,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대학을 가서도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된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떨까? 아들과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우울증 치료를 받는 부모들도 있다. 대학이라고 왕따가 없을까? 군대나 직장은 다를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에는 나갈 수 있을까? 혹시나 가해자를 사회에서 다시 마주한다거나, 방송에서 보게 되면 어떨까. 마치 어제 일처럼 되살아나는 고통과 통증, 억울함과 우울감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괜히 나섰다가 학교폭력 피해 입을까 봐'가 32.4%, '남의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29.9%, '서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15.3%, '이 정도 학교폭력은 일상인 데다 누구도 학교폭력을 없애거나 도와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10.0%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방관자의 복잡한 심리가 여기에서도 엿보인다. 학교폭력 발생 시에 학생목격자는 방관자는 되기 쉬울지언정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왜 그럴까? 개인의 용기 탓도 있지만 신고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의 탓도 있다. 신고나 개입을 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 즉,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아울러 친사회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협업 우선돼야

지금도 여전히 이런 학교폭력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쳐서 14만~25만 명이 학교폭력 언저리에서 고통받고 있다. 거기에는 언제나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가 있고, 교사와 학부모가 있다. 모두가 간절히 학교폭력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폭력은 사춘기의 성장통이다.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활력이 넘치는 청춘들이라 부딪쳐서 갈등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갈등의 수습이 중요한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른들이 협업하는 경우가 있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폭력의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인 수습은 두 부모의 협업이다. 협업하면 우정과 인간성의 회복이 가능하지만, 불화하고 갈등하면 십중팔구 경찰로, 검찰로, 법원으로 이어지고 두 집안의 악연으로 고착된다. 그 대표적 사례가 요즘 대두되는 학교폭력 미투 또는 학교폭력 재연 현상이다. 재학 중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10년이 지난 후에 그 불씨가 다시 화재로 피어오른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꼭 유념해야 할 일이 있다. 초중고 청년 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끈질기게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가해 사실을 곧 잊어버리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기억하며 고통받고 있다. 학교폭력 미투와 학교폭력 재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즉 재학 중에 발생한 학교폭력은 그 시점에서 제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해결이란 무엇인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선행된 후에, 피해자의 용서가 가미되어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래서 우정이 회복된 상태다.

부모나 교사들의 진지한 노력으로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 학교폭력은 기적처럼 쉽게 종결된다. 그러나 성인들의 고집이나 무관심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깊어져 언제인가는 폭발하게 될 에너지로 억압되어 갈 것이다. 청소년 시기의 가해자는 특성상 진정한 사과를 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 성인들 특히 부모나 친척 이웃과 교사들의 도움 없이 그들의 사과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온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칠 때가 되었다. 비폭력문화를 형성하여,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치유를 가해자에게는 사과와 참회를 목격자에게는 신고하는 용기를 북돋아야 할 것이다. 푸른나무재단은 그런 일을 지난 26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힘차게 이 일을 앞장서서 해나갈 것이다.

1.



잊으라고 하지 말 것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자."라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이미 벌어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아이가 다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무의식적으로 사건을 입에 올리는 것을 꺼리곤 한다. 빨리 지나가 버리길, 아이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를 그저 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란 지진이나 재해, 큰 교통사고를 겪은 뒤 끊임없이 그 사건이 떠오르고 재경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끊임없이 재발의 두려움, 예기불안에 시달리고, 자신을 때린 가해자와 닮은 사람만 길에서 마주쳐도 악몽이 생생히 되살아 난다. 이토록 큰 고통이 단지 시간만 지난다고 해결이 될까.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간+회복의 경험'이다. 아픔을 극복할만한 좋은 일, 가족의 지지, 회복의 계기가 있어야 아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을 잊고 억누를 것이 아니라 해방해야 한다.

가해자를 떠올리기만 해도 재발하는 두려움, 그때의 절망감과 무력감 등을 단순히 잊어버리려 하면 감정은 내 몸에 독으로 남는다. 의식에서는 잊는다고 해도, 무의식의 레벨에선 기억되고 저장되어 몸과 마음을 경직시키고 마비되게 한다. 표현하고, 소통하며,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꺼내어 말하게 해야 한다. 억울했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외로웠다고.

2.



가족이 첫 번째 상담사가 되어 줄 것

부모들은 아이가 왕따나 학교폭력을 당하면 당황한다. '우리 아이가 대체 왜?' 어떻게 해줘야 할까 안절부절못한다. 학교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아이는 우선 학교, 친구관계 자체에 두려움을 느낀다. 단순히 가해자뿐 아니라 이를 방관한 친구들에게도 원망과 미움, 섭섭함을 느끼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는 가족의 힘이 절실한 상태다. 이럴 때는 무조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줘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가장 큰 상처는 "내가 나약해서, 문제가 있어서 당했다."라며 자책하는 것이다. 흔히들, '학교폭력이나 왕따는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선입관과 시선이 피해자들을 더 위축시키고 자존감에 상처를 준다. 따라서 절대로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란 사실을 반복적으로 일깨워주고 지나간 일에 대해 자책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자기상을 갖지 않게 도와줘야 한다. 가끔 권위적인 부모님들이 의지로 이겨내라거나, 강하게 마음먹고 직면하며 극복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실수다. 부모님 세대와 현재의 학교는 전혀 다른 환경이며,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의지가 약해서 벌어진 일이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이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상담사의 마음으로, 치료자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3.



실질적인 대책, 지역사회와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

2021년 지금의 학교폭력 수준은 가벼운 따돌림 정도가 아니다. 한 예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매주 몇만 원씩을 상납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쉬는 시간마다 배와 가슴을 때린다고 한다. 얼굴을 때리면 티가 난다는 이유다. 부모님께 거짓말로 용돈을 타내기 힘들어지면 아이들은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를 쳐서 상납금을 마련하고, 가해자들은 상납금을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다고 한다. 선생님이나 교내 학교폭력위원회가 이런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선생님들과 가해자의 학부모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빨리 종결지으려 한다. 허울뿐인 사과와 다짐뿐,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은 없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거라 믿지 않는다. 오직 본인의 힘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 외로운 싸움을 이어간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 연계, 무료 심리 치료, 법률 상담 제공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도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시군구에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센터를 만들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4.



정신과 상담을 미루지 말 것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상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미루고 방관할 경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정신과적 증상도 예방과 초기 치료가 무척 중요하기에 트라우마 치료의 적기인 두 달 안에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량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린 자녀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하는 것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은 안전성이 보장된 약들이며 특히 청소년에겐 의존성과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에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친구와 선생님,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할 힘든 상처와 고민이 있는 자녀도 있다. 신체적, 정신적 상처는 물론, 최근 들어 빈도가 늘어난 성적 학대나 피해라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가까운 상담실을 찾아가 의논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교실 밖 일상 속의 인성교육 꽃피우다



김한수

대구 능인중학교 교사

새 학기가 열리는 봄, 학부모·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운영해 오면서 아이들의 교실 밖, 일상 속 인성교육을 실천에 옮겼다. 또 아이들의 큰 꿈을 응원하기 위한 진로캠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제자를 돕기 위한 자전거길 국토 종주까지. 지난해 12월, '2020 올해의 스승상'에 선정된 대구 능인중학교 김한수 교사를 만났다.

글_김혜진 객원기자

"2008년 이곳 중학교에 부임하면서 반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 '교실 밖 일상 속의 교육'이었어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가족 캠프의 형식을 빌린 것이었죠. 새 학기가 시작되고 4~5월경에 진행되는 캠프 후에는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캠프에 동행해 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키우게 되죠."

대구 능인중학교(교장 정영채) 김한수 교사의 이 같은 '참교육, 인성교육 실천'은 올해로 15년째를 맞는다. 2008년부터는 직접 '씨앗장학회'를 설립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난치병을 앓는 학생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는 후원 캠페인으로 부산에서 인천까지 633km를 자전거로 완주했다.

"행복가족캠프 하면서 아이들과 잘 놀았죠"

"교육은, 더욱이 인성교육은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교사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잘 뛰어놀았어요(웃음). 행복가족캠프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한 그중 하나이고요. 여름방학에 이뤄지는 진로캠프인 '꿈꾸는 커리어 버스' 역시 학교 밖에서 주로 활동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체험활동들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해 있는 아이들을 보면 대견하고 뿌듯하죠."

김한수 교사는 학생들로만 구성했던 첫해의 캠프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효과나 만족도 측면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단다. 그 대안으로 검토했던 의견이 학부모도 직접 캠프에 참가하기로 한 것. 장소도 교실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팔공산, 화왕산 등에서 야영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캠프 첫날, 밤에 촛불을 켜고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가한 부모님들도 당신의 부모님께 편지를 써요. 이때 종종 눈물을 쏟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 시간에는 특히 아이들이 더 큰 감동을 표현해요. '아, 우리 엄마(아빠)도 누군가의 딸(아들)이었구나!' 하면서요." 이렇게 감동한 아이들은 자신도 부모님께 다시 편지를 써서 읽으면 안 되느냐고 제안하기도 한다. 김 교사가 설계한 이 '행복가족캠프'의 목표는 명료하다. 서로 다른 영역의 주체인 부모와 자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인 그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야외 캠프를 운영하면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아이들에겐 자신감 충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캠프장이었던 팔공산, 또 화왕산 입구까지 '엄마(아빠) 찬스'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가는 미션이 조별 활동으로 부여된다. 조금 늦어지는 팀은 있어도, 아이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찾아온다는 게 김 교사의 귀띔이다. 그러면서

그는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에서 동시에 수행되어야 효과가 크기 마련인데, 새 학기의 이 가족 캠프가 교육가족으로서의 역할에 큰 디딤돌이 되는 것 같다.”라고 소개했다.

‘꿈꾸는 커리어 버스’와 ‘씨앗장학회’

학생들의 진로캠프인 ‘꿈꾸는 커리어 버스’는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현재 능인중학교뿐만 아니라 대구시교육청과 연계, 대구시 내 타 중학교와도 공동으로 운영된다. 이제까지 대구지역을 벗어나 서울시청과 국회, 파주 출판단지 등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면, ‘그 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와서 당황할 때도 있죠. 이런 아이들을 위해 ‘큰 사람들의, 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키워 보자’는 주제로 만든 프로그램이 ‘꿈꾸는 커리어 버스’입니다. 이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의 그림을 스스로 그려갈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기특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대학로의 극장에서 뮤지컬 배우와 만났던 한 제자는 자신의 꿈대로 현재 영화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교실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그다.

김 교사는 2008년부터 ‘씨앗장학회’를 설립,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씨앗 장학증서’의 혜택을 받은 학생은 25명. 발족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장학회는 한때 존립의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저의 고교 동창들이 매달 후원으로 장학기금 마련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오면서 친구들의 경제 사정도 나빠졌고, 기금도 고갈되어 갔죠. 그때 고맙게도 아내가 큰 결심을 해 주었죠. 단 한 명의 학생에게라도 장학생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게 하자고요. 그렇게 매달 5만 원씩 아내가 기금을 적립해 나갔죠. 이후부터 발급하는 장학증서는 아내(이선희 씨) 명의로 표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1



2

633km를 달린 ‘사랑의 자전거길’

학교에서 현재 장학담당 업무를 맡은 김 교사는 지난해 8월,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실행에 옮겼다. 재학생인 난치병 환우와 코로나19로 가정 형편이 절박해진 학생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 늦여름 더위가 유독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8월 14일, 김 교사는 자전거를 타고 부산 낙동강 하구에서 출발, 인천 서해 아라갑문까지 633km의 자전거길 종주를 완주했다. 새벽 5시 출발하여 오후 6~7시까지, 꼬박 3박 4일을 자전거 두 바퀴에 의지해 달렸다. 다행히 그의 결단에 흔쾌히 함께 달리겠노라며 지원해 준 친구와 동료 교사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단다.

“완주 과정이 동료들이 가입해 있는 SNS에 실시간으로 공개됐어요. 지켜보던 선생님들의 후원으로 750만 원이라는 거금이 짧은 시간에 적립되었고요. 후원금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아, 다른 선생님들도 3박 4일 동안 이렇게 응원하면서 한 마음으로 달리셨구나’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솟았죠.”

완주 후에도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동참하면서 후원금은 950만 원으로 불어나 그를 더욱 감동케 했다. 김 교사의 이와 같은 장학담당 업무는 그가 교직에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 자신, 고교 시절 등록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실업계 학교로 전학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만큼 어려움을 겪었던 터다. 김 교사는 그때 은사님들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현재의 진로는 달라져 있을지도 모른단다.

김 교사는 지난해 12월 말, 교육부에서 선정한 ‘2020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했다. 이때 받은 상금 일부도 ‘씨앗장학회’의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사랑의 자전거길’처럼, 올해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학생들과 함께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전거 종주도 구상 중이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행복가족 별밤캠프’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아쉬움이 컸었죠. 올해는 이 프로그램과 대체할 만한,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캠프도 구상 중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일상 속의 체험과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는 김한수 교사. 올해 안에 이 체험활동의 구체화 된 정보들을 담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도 출간할 계획이다.


3

1 재학생인 난치병 환우와 코로나19로 가정형편이 절박해진 학생을 돕기 위한 나선 사랑의 자전거길 633km 종주

2 매년 진행해온 행복가족 별빛캠프.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캠프를 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3 일상 속의 체험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는 김한수 교사



기다림과 어울림의 가온해 통합체육

글 _ 김보미 공주교대부설초 연구부장교사



왜 '통합체육'인가?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교장 이상도)에서는 '가온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체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년차 교육부 상설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본교는 1학급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5명의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교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특수학급에서의 기본교육과정 활동은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이외의 체육, 미술 등의 예체능 교과에서는 일반학급 교사의 통합수업에 대한 인식 및 수업준비 부족, 일반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의 이유로 실천적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통합체육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교수·학습 방법 등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장애-비장애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통합체육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장애공감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통합체육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놀이 중심의 가온해 통합체육 프로그램

'가온해' 프로그램이란, 세상의 가운데, 중심을 뜻하는 본교 교육 역량인 '가온해'와 연결지어 '가',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마음과 '온', 통합교육 문화 구축을 위한 따뜻한 사회 분위기로 '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복을 실천해 나가는 지혜를 실천하는 다양한 통합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뜻한다.

통합체육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구성원이 통합체육수업에 대해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 연구와 지속적인 연수 및 교육활동을 학생, 학부모, 교사의 통합체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가온해 통합체육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서는 학년별 교육과정 분석과 재구성을 통한 프로그램 수업 모델 개발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놀이 중심의 가온해 통합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통합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충남체육회와 함께하는 전통스포츠 페스티벌



먼저, 5~6학년을 대상으로 2020 충남체육회와 함께하는 전통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 활동으로 학생들은 전통 종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잊혀져가는 전통스포츠를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었다. 페스티벌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구급차 대기, 의료부스 설치와 위생수칙 및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매뉴얼을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부스별로 △전통 종목 체험<왼쪽 사진> △전통경기 운동회 종목 △만들기 및 체험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눴다. 전통 종목인 대형윷놀이, 굴렁쇠 굴리기, 투호 던지기, 버나 돌리기를 체험했으며, 딱지와 제기도 만들어 체험해보았다. 특히 단체줄넘기, 짚신 멀리 던지기, 바구니 터트리기 등의 종목으로 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게임형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스포츠를 경험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민속놀이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찾아가는 High Five 뉴스포츠 통합체육교실



또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뉴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찾아가는 High Five 뉴스포츠 통합체육교실'을 운영하였다.

첫날에는 공주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강사가 방문해 실내외에서 할 수 있는 싱글게이트볼과 스쿠프<왼쪽 사진>와 코스모펀볼을 사용하여 공 주고받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는 장애학생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으로 이를 계기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의 통합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어울림을 통한 1학년 생일 축하의 날



'어울림 생일 축하의 날'은 1학년을 대상으로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서로 간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서로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하였다<왼쪽 사진>. 학생들은 서로 간에 거리두기를 지키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친구의 칭찬할 점을 찾아 칭찬해주는 '칭찬선물'도 서로에게 전달해주었다. 또한, 친구와 협동하여 스쿠터 릴레이 및 링토스 놀이도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즐거운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1학년 '어울림 생일 축하의 날'을 계기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과 함께하는 삶의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해나가길 기대해본다.

3학년, 가온해 통합체육 수업 나눔

전문적 교사학습공동체 기반 동료 장학 과정

1단계 : 계획 수립

<1차 협의>
1-1. 자율적, 협력적 관계조성
1-2. 수업공개 교사 선정
1-3. 수업연구 과제 선정
1-4. 학생·수업에 대한 정보 교환

<2차 협의>
1-5. 상호 사전 교재연구
1-6. 학습지도안 협의, 작성
1-7. 역할분담, 수업관찰계획 수립

2단계 : 수업 관찰

2-1. 학습지도안 확인
2-2. 역할분담에 따른 수업 관찰
2-3. 수업관찰 결과 정리

3단계 : 결과 협의

3-1. 수업관찰 결과 논의
3-2. 수업연구 과제 해결 및 수업개선 방안 설정
3-3. 적용 및 평가

또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즐기는 통합체육 수업 활동을 공개하고 전문적 교사학습공동체를 대상으로 수업 나눔을 실시하였다<아래 사진>. 3학년 2반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눔 수업은 술래 피하기 활동을 바탕으로 술래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과 전략을 익히며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의 통합체육 수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장애 이해 교육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지도교사는 특수학급 학생과 함께하는 두 가지 방식의 술래 피하기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에 필요한 전략을 탐색하고,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하여 경기 수행 능력과 공동체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계획하였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은 "안대 술래잡기 게임을 해보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고, 시각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껴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수업 후에는 온라인 수업협의회를 갖고 사례 공유와 함께 수업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 비전공 교사들도 장애학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통합체육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통합체육이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제 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 체험
2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특수교육 대상학생 건강체력 측정

장애·비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체육 연구학교 운영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확인하였다. 일반 학생은 PAPS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장애학생은 PAPS-D라는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대전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 방문해 신체조성(인바디), 근력(악력),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유연성(좌전굴),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등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체력상태를 확인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통합체육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신문을 발송하고 낱말 퀴즈 이벤트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연수도 가졌다.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 중의 하나인 보치아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을 하였는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4학년, 어울림 스포츠의 날

'어울림 스포츠의 날'은 코로나19로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영되었으며, 모두가 즐거운 뉴스포츠 활동을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4학년은 반별로 팀을 나누어 변형 배드민턴 게임인 '힐릭스'와 변형 투구 게임인 '피칭 타겟'을 체험하였다. '힐릭스'와 '피칭 타겟'은 장애학생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뉴스포츠 활동으로 경쟁보다는 상호 협동과 배려로 즐겁게 참여하였다.

2학년 '비대면 어울림 챌린지'



어울림 동요챌린지는 장애 인식개선과 우정 다지기의 마음을 기를 수 있었다. 동요챌린지는 '달라서 빛나는 우정'을 주제로 동요의 노랫말 일부를 바꾸어 노래를 부르는 활동으로 개인 18팀과 단체 4팀이 참가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수업 분석실에서 동요챌린지를 진행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교실에서 줌으로 관람하였다<왼쪽 사진>. 동요챌린지를 마친 후에는 어울림 워커 놀이와 나인볼캐치 '어울림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문화가 지속해서 챌린지 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2학년 학생들이 이번 비대면 어울림 챌린지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 학생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5학년, '어울림 놀이밥 시간' 확보해 놀이형 스포츠클럽 운영

5학년은 중간 놀이밥 시간을 활용하여 놀이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였다. 줄넘기와 발목줄넘기 전통놀이 등 일과 시간 중 자투리시간을 활용하여 특수학급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통합체육 활동을 위한 놀이밥 NEW SPACE 구축으로 강당에서 스테이션 수업 공간이 구성되었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학습, 놀이, 쉼이 있는 공간과 환경이 마련되었다.

6학년, 학교 숲 산책길 걸으며 어울림 배운다



6학년 학생들은 가온해 어울림 등반대회를 실시하여 친구와 함께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오른쪽 사진>. 우리 학교에는 '꾀꼬리 선생님'으로 불리는 유명한 숲 해설사가 계신다. 바로 본교 이상도 교장 선생님이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학교 숲 산책길 걷기를 통해 6학년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의 고마움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짐도 해본다.

특수교육 비전공 교사를 위한 '통합체육' 고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환경이 바뀌었다. 교육환경 변화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불러오면서 통합체육 또한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격수업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e-스포츠나 홈트레이닝 등을 활용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적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체육교과는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친해질 수 있는 교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과로 인식되면서 통합수업의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실제 통합체육을 연구하면서 현 체육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구성에 맞추어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즐기는 통합체육 수업 구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장애 유형별 통합체육 지도 방법 세분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 비전공 교사들도 장애학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통합체육 지도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SPECIAL

고교교육의 혁신, 고교학점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감염병 유행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급속히 진행 중이다. 교육계 안팎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있다.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현재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마이스터고의 운영 사례,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학생, 선생님들의 생각 등을 들어봤다.

28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고교학점제
32 "원하는 과목 골라 들으며 진로 그려나가요"
36 고교혁신을 위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고교학점제

글 _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감염병 유행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급속히 진행 중이다. 교육계 안팎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고교학점제는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교 교육은 학사운영, 교원 배치, 공간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된다. 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개인별 시간표를 갖게 된다. 학생은 출석과 학업성취율을 토대로 학점을 따게 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 지도한다.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화되고, 일반고에서도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융합과목, 직업 계열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계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도 학습할 수 있다. 교실 중심의 획일적 학교공간은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홈베이스 등으로 다양화된다.

[표1]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학교의 변화

	과거의 학교 운영	고교학점제에서의 변화
교육과정	• 교사 중심 획일적 교육과정 • 대학 진학 중심(일반계고) • 학급별 시간표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 진학, 취업, 예체능 등 진로 존중 • 학생 개인별 시간표
학사운영	•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 • 학업 참여 동기 부족	• 출석+학점 취득해야 졸업 • 학업 이행 책무성 부여
교수자원	• 소속 학교 교사의 수업 수강	• 타 학교 수업, 온라인 수업 수강 • 학교 밖 전문가 수업 참여
학습공간	• 소속 학급 중심의 생활 • 일반교실 중심의 획일적 공간	• 선택과목 중심의 이동수업 • 학습·지원·공용공간 등 다변화
고교체제	• 고교 유형에 따른 서열화 • 학교별 분절적 교육과정 운영	• 학교 내에서 학생별 맞춤형 교육 •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주요 내용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은 2018학년도부터 운영해 온 연구학교의 경험을 토대로 분야별 정책 연구, 기관 간 협업,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학생 중심 학교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세 가지의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에 맞는 교육제도가 설계된다. 2025년 고1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수업량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된다. 고등학교의 총 이수학점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되어, 보다 유연한 학사운영이 가능해진다.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의 과목 구조도 개편할 계획이다.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 I 을 보통교과로 포함시키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다양화한다.

현행 고교 과목구조

교과	과목
보통교과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	전문교과 I *(심화과목)
	전문교과 II (직업과목)

개편안(2025학년도~)

교과	과목
보통교과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	전문공통/전공일반/전공실무

*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 과목

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또한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표2]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추진 과제	주요 내용	
①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교육과정	• **총 이수학점 적정화, 과목구조 개편 및 과목 다양화** • 중-고교 **학교급 전환 시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사제도	• **과목 이수기준 정립**(출석률, 학업성취율 충족 시 학점 취득) • **학점 기반 졸업체제 마련**(출석일수 충족 ⇒ 출석+학점 취득)
	평가제도	•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2019년 진로선택과목 → 2025년 모든 선택과목) •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 착수**(2028학년도 대입 적용)
② 학생 중심 학교 운영 지원		•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체계화,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 •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 탐구 활동' 도입**, 에듀테크 기반 교육혁신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③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 교원의 다과목 지도역량 강화, **학교 밖 전문가 교육 참여** 활성화 • 학습·공용·지원공간 등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지원** • 지역자원 연계, 교육소외지역 여건 개선 등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졸업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과제 수행이나 보충 지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상대평가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는 성취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하여, 상대적 서열화 대신 학생이 성취한 수준에 따라 A,B,C,D,E의 성취도로 성적을 산출한다. 고교학점제가 반영된 미래형 대입제도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성취평가제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70% 미만	D
60% 미만	E

향후(2025학년도~)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70% 미만	D	
40% 미만	I *	↓ 미이수

↑ 이수

* 미이수 과목에 통상 F학점을 부여하나, 단어의 의미(Fail)를 고려하여 I(Incomplete) 사용

2. 학생 중심 학교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는 학업 계획 수립부터 과목 이수까지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이다. 고등학교 1학년때 자신의 진로·적성을 탐색하고, 진로와 연계한 학업계획을 수립한 뒤, 2~3학년 때 선택과목을 수강하면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점 이수를 돕기 위해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도 학점제에 맞게 재구조화된다.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을 탐구형 자율 활동과 통합한 '(가칭) 진로 탐구 활동'으로 개편해 진로 관련 프로젝트 학습, 체험 중심의 학교 신설 과목, 교과 융합 활동 등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점제 운영 노력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학교 간 또는 지역사회 단위에서도 이루어진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과목의 경우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고등학교 교육에 지역사회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도 운영된다(2021. 34개 지구). 또한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2021. 전체 도(道)지역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3.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교육제도, 학교운영의 변화와 함께 학점제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도 이루어진다. 신산업 등 희소 분야의 교원이 시급히 필요할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수시로 신설하고, 다과목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복수전공·부전공을 활성화한다.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를 배치하여(2021.3.1.자 122명 배치) 학교에 담당교사가 없더라도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 교과를 담당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수업의 규모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공간 조성도 이루어진다. 온라인 학습실, 가변형 교실, 홈베이스 등 다양한 학습·지원·공용공간을 학교에 마련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점제형 공간조성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학교공간혁신 사업, 교과교실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3]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학점 및 시간 범위(안)

편성	현행			편성	개편안(2025학년도 본격 시행 이후)		
교과	교과		180단위	교과	교과	174학점	
창체	진로 활동		24단위	창체	진로 탐구 활동(가칭)	9학점	18학점
	자율 활동	탐구형					
		자치형			동아리, 자치 등 (운영 방식 학교 자율 결정)	9학점 (144시간)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총합	204단위			총합	192학점		

* 기존의 봉사활동은 진로 탐구활동, 동아리 및 자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사례


온·오프라인 융합 교실(전남 능주고)


휴식·전시 공간(충북 청원고)


학생 복합 생활공간(인천 명신여고)


대형 강의실(제주 신성여고)

향후 일정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평가제도, 교원 및 학교 공간 등 학교 교육의 총체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을 포함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고교학점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교육 대전환의 토대가 단단히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표4]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로드맵)

편성	2021	2022	2023	2024	2025
학점제 도입	마이스터고('20~)	특성화고 도입, 일반계고 제도 부분 도입			전체 고교 전면 적용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 발표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22 교육과정 적용 (고1~)
평가제도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전 학년 적용	성취평가제 안착 기반 마련 (모니터링 체제 구축, 교원의 평가 전문성 제고)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 (고1~)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계고(1,680교)				모든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 경험 축적
		과학고(20교)			
	외고·국제고·자사고(76교) 중 일반고 전환(예정) 학교				
	직업계고(518교)				
		특수학교(2교 이상)			
학점제형 공간조성	233교	549교	567교	-	학교공간 조성 연차적 지원 (시도별 추진계획에 근거, 추후 변경 가능)
교·강사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2022, 1,600여 명)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지속 추진 학점제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마련(~2022)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학교_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원하는 과목 골라 들으며 진로 그려나가요”

지난해 전체 마이스터고 51개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다.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학년도에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교장 이형원)는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운영해왔다. 전교생 336명의 학교는 뉴미디어소프트웨어과·뉴미디어웹솔루션과·뉴미디어디자인과 등 3개 학과별로 코스형 고교학점제를 운영한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의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글_양지선 기자

지난 3월 16일 5교시,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뉴미디어웹솔루션과 2학년 학생들의 ‘스프링’ 수업이 이뤄졌다. ‘스프링’은 서버구축 및 운영에 관해 실습하는 과목으로,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배우는 교과다. 이날은 개학 후 처음으로 등교수업이 이뤄진 날. 교사의 시범을 따라가다 막힌 학생들은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아직은 서투른 모습이었지만, 집중하며 수업에 임했다. 양가영 학생은 “백엔드(서버 개발)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서 주변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해 ‘스프링’ 과목을 선택했다.”라며 “원래 프로그래밍 쪽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백엔드 관련 과목을 선택하고 배워보니 재미있어서 진로도 이쪽으로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학과별 코스형 고교학점제, 부전공 이수도 인정

미림여자정보과학고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지 올해로 4년째가 됐다. 학교는 뉴미디어소프트웨어과·뉴미디어웹솔루션과·뉴미디어디자인과 등 3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학과별로 직업군을 코스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세부전공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예를 들어, 뉴미디어소프트웨어과에서는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와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코스가 있다.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코스를 선택한 학생에게는 ‘웹표준화’, ‘응용프로그래밍개발’, ‘웹사이트제작’, ‘컴퓨터네트워크’를 선택과목으로 권장한다.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코스를 선택하면 ‘프로그래밍(Python)’, ‘서버구축 및 운영’, ‘컴퓨터시스템일반’, ‘응용프로그래밍개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학과 안에서도 본인의 희망진로에 따라 세부 선택과목은 달라지게 된다.

전공 교과 이외에 타 학과 과목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는 학과가 크게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계열로 나뉘는데, 선택과목으로 타 학과 전공역량도 키울 수 있는 셈이다. 또한, 해당 학과의 선택교과를 24학점 이상 이수할 시에는 부전공 자격도 취득된다. 이형원 교장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수업을 들으면서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기도 한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수업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학교 차원에서는 사전에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과설명회를 통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지도한다.”라고 말했다.

학교 밖 교육과정 정규 학점화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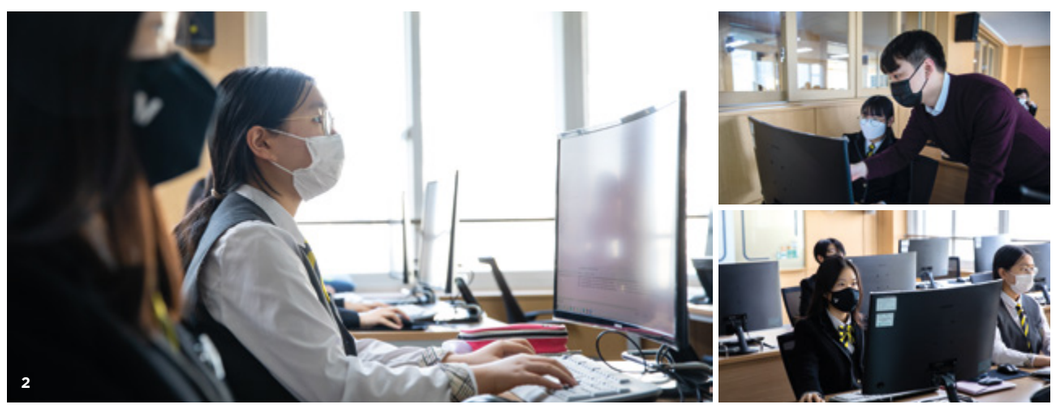
고교학점제 관련 교사 연수와 컨설팅 활동을 해온 김지훈 부장교사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해본 결과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방식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에서 모두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은 자기 진로에 주도권을 갖게 됐고, 어떻게 해야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평가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 중 하나로 교사 수급 문제를 꼽기도 한다. 수요에 맞춰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고, 한 수업에 학생들이 몰리면 분반이 필요하기도 하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에서는 전공 교과의 경우 12명 이상, 부전공 교과는 5명 이상이 신청할 경우 개설된다. 소인수라도 학생들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 학교의 방침이다. 김 교사는 “보통 교사 한 명당 일주일에 한 시간씩 수업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후 학교 밖 교육과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의 특징적인 점은 학교 밖 지역사회 학습장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학교는 지난 2019년 중앙대학교와 학교 밖 교육과정 협력을 이뤘다. 덕분에 방학 기간 중 대학 교수진이 직접 학생들에게 AI·디자인 관련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신청을 통해 원하는 분야의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이뤄졌지만, 대면 강의가 재개되면 교수진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실험 실습이 필요할 경우



1 이형원 미림여자정보과학고 교장
2 학생들은 과목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진로에 주도권을 갖게 됐다. 사진은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뉴미디어웹솔루션과 2학년 선택과목 중 ‘스프링’ 수업 모습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필요한 장비와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이형원 교장은 이와 같은 학교 밖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에서 더욱 활성화돼야 하며, 나아가 학교 밖 교육과정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학생들이 졸업학점으로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 마이스터고에서 현실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해당 학점을 학교 안에서만 취득하는 건 어려움이 많다. 계절학기나 방학을 이용해 학교 밖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듣고, 이에 대한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전공 교사와 중앙대학교 교수진은 학점 인정을 위해 교과용 인정도서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취업률 90%, 전공 연계 분야 100% 취업 성과

고교학점제 운영 4년째를 맞은 학교는 그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연구학교 첫해에는 무학년제로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시도도 했었지만, 한계점을 깨닫고 학년별로 선택과목을 운영하게 됐다. 평가와 미이수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고민으로 남아있다. 학교는 전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며, 전문교과 II (전공수업)에 한해 60% 이상 성취 수준을 달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최소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없었지만, 앞으로 발생할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는 계절학기를 이용한 재수강 등 책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김지훈 교사는 "수학·영어 같은 기본 과목의 경우 수준별

3 지난 1년간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미림여자정보과학고 2학년 학생들과 김지훈 부장교사

수업을 진행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미이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는 시간표상에 공통적으로 '블록타임'을 설정해 선택과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 수급과 공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시간에만 선택과목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덕분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은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학교는 앞으로 공강이 생기더라도 학생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미림여자정보과학고는 취업률 90%를 기록하며 학생들의 뛰어난 역량을 자랑했다. 특히 전부 전공과 연계된 분야에 취업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본인의 진로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성공적으로 설계해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형원 교장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크게 공감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과정, 학생들에게서 공감을 이끄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결국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제도이기에 모든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장에 안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Mini Interview :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듣다



김유나 2학년 뉴미디어소프트웨어과

같은 과여도 친구들마다 가고 싶은 분야나 배우고 싶은 게 다른데, 제가 원하는 분야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여러 과목을 들으면서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이번에 '웹표준화(자바스크립트)' 과목을 선택했는데, 처음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보니 성취감이 있고 재미있더라고요. 다만 아직 전공 분야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선택과목 각각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양가영 2학년 뉴미디어웹솔루션과

고교학점제를 통해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이번에 선택과목으로 '웹사이트제작(JSP)'을 듣는데,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아쉬운 점은 학생 수가 적으면 수업이 열릴 수 없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과목을 들어야 해요. 앞으로 여러 과목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세울 2학년 뉴미디어디자인과

현재 '서비스경험디자인'과 '뉴미디어콘텐츠제작' 과목을 선택해 듣고 있어요. '뉴미디어콘텐츠제작'은 애프터이펙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동영상, 모션그래픽을 만드는 것인데 무척 재미있어요. '서비스경험디자인'을 배우며 기획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돼서 관련 분야로 진로도 생각해보게 됐죠.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니 더 열심히 수업을 듣게 되고,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고교에서의 고교학점제 경험담

고교혁신을 위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교육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리자 간 공감과 충분한 소통 그리고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글 _ 오윤석 인천 연수중학교 교사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된 학점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일반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교육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고교학점제의 긍정적인 부분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고교학점제는 이제껏 우리 교육이 경험해보지 못한 교육혁신이다.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가 교육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리자 간 공감과 충분한 소통 그리고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세울 수 있다.

고교학점제 최대 장점: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와 학생 중심 수업

필자가 근무했던 고등학교는 대도시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일반계 남학교로서 시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들에 비해 비선호하는 학교였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로 탈바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그중 인근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 선정되어 고교학점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고교학점제를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꼽는다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 중심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 과목 선택권이 주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학생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과목을 고를 수 있다

고교학점제의 최대 장점은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이 생겼으며 이에 따른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교 교육과정 체제는 패키지여행처럼 학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 교육청, 학교가 설계한 틀 안에서 그 틀에 적응하도록 학생들을 종용했다면,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이 주어지고 학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교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여행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한층 밀도 있는 수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간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며 학생 중심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현재 교사들은 과거에 해왔던 교사 중심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많으며 이는 교사 중심 수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규수업시간 이후 이루어지는 수업들에서는 정규수업시간에 개설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소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업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학생 중심 수업으로 연결된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 관리자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교직원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반면, 고교학점제를 경험하면서 개선할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 관리자들의 인식과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관리자는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워 자신이 설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 하는 반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낮아 무관심한 관리자도 있다. 따라서 관리자들이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또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을 포용하며 설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민주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교사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갖춰야 한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고교학점제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와 필요성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진로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제시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끊임없는 스스로의 연찬이 필요하며 교육청 및 학교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 과목 개설 시 학교 구성원들 간 충분한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 어떤 과목을 개설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한, 학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과목 개설은 수요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관리자 또는 교사가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여건상 누구나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과목 개설은 고교학점제의 초석이므로 누구 혼자만의 주도로 과목이 개설되어서는 안되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각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 과목이 개설되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시 승인 절차 간소화와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지도교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고 학교 밖 강사가 학교로 와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 과목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학교 밖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학생들을 인솔하여 교외에서 체험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교사는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학생 인솔 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게 된다.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외 체험활동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교외 체험활동 시 동반되는 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학생 인솔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 교육청은 단위학교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의 유관기관들을 안내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사정에 따라 교사 1명이 여러 과목의 수업을 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서 교사 1명이 여러 과목을 맡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 교원 수급의 문제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적은 교과목을 맡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반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과목 수업을 맡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수의 안배와 더불어 강사 채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지역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거나 학교 밖 수업을 필요로 할 경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을 직접 찾아 섭외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 된다. 교사들이 갖는 업무 증가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청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학교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면 교사들의 업무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과목의 수를 무리하게 개설하기보다는 두세 개 학교가 모여 정규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토요일을 활용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고교학점제의 큰 장점은 기존 체제에 비해 과목 개설의 폭이 넓어지고 많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를 주관하는 운영 부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간표를 짜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교사들은 수업이 두 시간 이상 연속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과목 수가 많고 다양하다 보니 세 시간씩 수업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시행이 됐을 때 학생마다 시간표가 달라 일과 중 공강이 생기는 학생도 생길 것이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학생 생활 지도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규시간 이외의 시간에 밴드형 또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추천한다. 두 학교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밴드형을,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면 토요일을 이용한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단위학교가 가지는 여러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자신의 진로설계와 미래를 가꿔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

이제 불과 4년 후면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한 가운데서 학점제를 경험했던 교사로서 걱정이 앞선다. 고교학점제는 우리 중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고교학점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가꿔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후학 양성에 묵묵히 힘쓰고 있는 교사들의 쓴소리는 4년 후 고교학점제의 밑거름이 되어 교육의 혁신으로 꽃을 피울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_ 창의융합교육원

체험하고 탐구하며… 미래인재 기르는 교육 공간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은 과학·수학·영재·국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원하는 곳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탐구하는 다양한 창의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교 교육을 적극 지원한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을 소개한다.

글 _ 양지선 기자

미래 핵심인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창의융합' 인재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가진 미래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과학·수학·영재·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청이 행정과 정책 관련 업무를 위주로 한다면,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교육청 직속 기관으로서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수학교육과 관련해 교육원에서는 활동·탐구 중심 수학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수학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즐겁게 참여하는 수학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수학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연수와 연구 활동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기존 체험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수학체험 꾸러미를 발송하고, '구글 도구









1 지난해 새롭게 단장한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내 수학체험센터. 수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교구가 다양하게 마련돼있다.

66

수학체험 꾸러미 발송,
교사 원격수업 연수 등
교사와 학생의 배움이
모두 이어지도록 도왔다.

99

활용 직무연수', '원격수업을 위한 수학 학습자료 제작' 등 다양한 교사 연수 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며 교사와 학생의 배움이 모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타 시도에서는 국제교육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안에는 국제교육부가 함께 들어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제교육부에서는 원어민 영어 교사의 원격 화상수업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센터 내 원어민 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에서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개인별·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자체 개발한 교재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며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과학교육의 경우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과학전람회 등 청소년들의 과학적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대회를 다양하게 개최해왔다. 초등·중등영재교육원은 매년 수학·과학 분야에 잠재적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득룡 원장은 "앞으로 인문학 분야까지 포함해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교육의 전 분야를 지원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2 지난해 코로나19로 체험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가정에 발송한 수학체험 꾸러미
3 센터 안에서 이뤄진 수학코딩·SW교실 수업 모습(코로나19 이전 촬영)





센터 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안에는 학생들이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는 발명교육센터와 수학체험센터가 있다. 발명교육센터에는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최신 발명교육 기자재를 구비해 발명메이커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새롭게 단장한 수학체험센터에는 수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가 가득하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을 직접 만지고 응용할 수 있어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체험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학 탐구학습 교실도 운영한다.

센터 안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에는 4,000여 권이 넘는 수학 관련 책을 보유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이 와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도서관 한쪽에는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한 1:1 수학 학습 코칭실도 마련했다. 또한 수학 대중화 강연도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수학체험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교구는 학교에서 대여할 수 있다. 교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구를 신청하면 2주 동안 대여 후 반납하면 된다. 정경희 교육연구사는 "가장 많이 찾는 교구는 바로 수학 보드게임으로, 수학적 원리를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인기"라고 전했다.

지난해 가정에서 즐기는 수학체험 꾸러미도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수학 교사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엇사각기둥 방향제', '요시모토 큐브', '헥사스틱' 등 다양한 교구를 직접 제작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다.

올해부터는 과학교육 꾸러미도 추가로 제작된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과학체험 꾸러미로, '나의 탄생 별자리 찾기', '볼록렌즈 사진기 만들기' 등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했다. 영상과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에 전달되는 꾸러미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으로 배달할 예정이다.

김득룡 원장은 "광주 지역에 최근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부터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위주로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며 "공감과 울림이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Mini Interview

김득룡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

김득룡 원장은 지난 3월 1일 자로 취임해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을 새롭게 이끌고 있다. 광주과학고에서 교장을 지낸 김 원장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제때 지원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교육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삶과 맞닿아있는 교육'을 강조한 그는 21세기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길러내 광주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Q1 _____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과학교육과 연구활동에 치중했다면, 2년 전 창의융합교육원이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과학, 수학, 영재, 외국어, 발명교육까지 아우르고 있다. 소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에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확장된 것이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선생님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어도 교사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올바르게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그래서 현장 교사를 연구원으로 모셔와 함께 교육을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도록 하고 있다.

Q2 _____ 올해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운영 계획은?

여전히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은 이어져야 한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방역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실행할 계획이다.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으로 비대면 교육에도 익숙해진 만큼 체험꾸러미를 영상과 함께 제공하는 것은 올해도 이어간다. 센터로 오는 체험활동이나 학교로 찾아가 직접 현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늘려갈 예정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은 방치되어선 안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 교육을 지원하려 한다.

Q3 _____ 임기 내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광주 지역 아이들만큼은 우리 교육원을 통해 미래 핵심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싶다. 특히 국제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이 영어, 중국어, 불어 등 외국어에 대한 친숙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과학부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유대학 체계 구축

글 _ 김홍오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사무관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공유성장형 고등교육 체계 구축과 뉴노멀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학 현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로 '공유대학'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개최한 고등교육 정책포럼(2·3회)에서 공유대학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와 경쟁 중심에서 벗어난 공유·협력 세계관 대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공동화 극복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온라인 중심 교육의 활성화는 공유대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대학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대응 체계 구축과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고, 학생은 교과목과 교육과정의 선택권이 확대되며, 기업이 원하는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등 공유대학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학습, 인공지능, 학습 분석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접목해서 학습 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고등교육의 생태계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공유대학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유대학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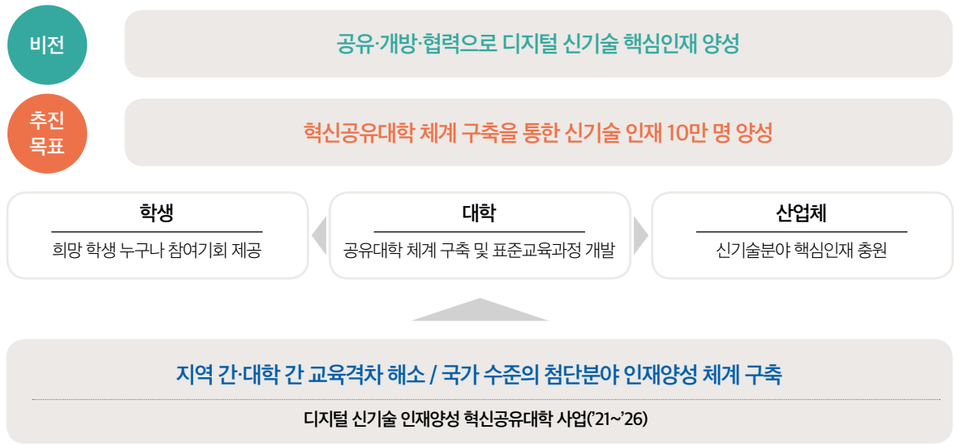
공유대학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2020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에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알리바바의 데이터 분석 인력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해도)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신기술분야 인재의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며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형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대학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기존의 대학별 인재양성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교육 콘텐츠, 전문 교수인력, 교육장비 등 인적, 물적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학 간, 지역 간 교육자원도 편중되어 각 대학의 학생들이 신기술분야 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공유와 협력을 통해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부처 등 역량을 결집·공유하고 신기술분야의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준별 인재를 양성하는 공유대학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8개 신기술분야 우선 지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이하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신규 과제로 발굴되었다.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고 포용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1년 832억 원이 확보되었다.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6년간 약 10만 명의 신기술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공유, 개방, 협력을 통한 지역 간, 대학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국가 수준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8개 신기술분야를 우선 지원하는데, BIG3에 해당하는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그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로 4~7개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유대학 체계를 구성하고 컨소시엄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체계 구축, 공유 가능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희망하는 학생에게 신기술분야 교육기회 제공, 공유·협력 및 성과확산을 포함하였다.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체계 구축

대학별, 학과별 분절적인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인재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신기술분야의 교원, 교육 콘텐츠, 시설, 기자재 등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과 지방 간 협업 모델을 마련하고,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교육과정 설계와 조정, 교육콘텐츠의 최신화, 문제해결형 교과목 구성을 위한 사례개발, 강의제작 참여를 위한 교수요원 발굴 등 인재양성에 실제 필요한 사항 위주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공유 가능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신기술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및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 대학의 기존 전공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모듈형 과정으로 구성하게 된다. 온라인 강좌나 실험·실습 운영 매뉴얼과 같은 대학 간 공유가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하되 교육과정을 문제해결형으로 구성한다. 신기술분야 과정, 신기술분야-기존 전공 간 융·복합 과정, 기존 전공과정 간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인증, 학위과정으로 구성한다.

희망하는 학생에게 신기술분야 교육기회 제공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대폭 확대한다.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수준별, 분야별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화하여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학 간 학사제도도 상호 개방하여 소속하지 않은 다른 대학의 교과목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학생들이 전공선택의 제한이나 취업준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유·협력 및 성과 확산

각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신기술분야별 교육 콘텐츠를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전체가 공유·활용하여 학생이 각자 다른 대학에 소속되어 있어도 보다 폭넓게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더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어디서나 신기술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대학에 소속된 학생과 일반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강좌를 K-MOOC에 탑재하는 등 성과를 공유·확산한다.

이러한 혁신공유대학 사업 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지역 간, 대학 간 역량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원과 소속 대학의 벽을 뛰어넘어 신기술분야 우수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둘째,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체, 연구기관 학회,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셋째, 대학생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양질의 신기술분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협력 범위의 확대

혁신공유대학 추진과정에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의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신기술분야별 교육과정 및 사업의 성과·정보·자원 공유, 신기술분야 간 융·복합 과정 개발, 참여 학생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다각적 협업 모색을 위해 컨소시엄 간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등 관계부처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다. 혁신공유대학 참여 학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기존 사업의 직업훈련, 분야별 학위과정과 연계한다. 연계·협력에 참여할 관계부처 및 기존 사업 참여기관, 전문가, 협력기관을 지속 발굴하고 상호 공유한다. 셋째, 연계·협력을 실무 지원하는 기관으로 산학협력법 제13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교육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한국연구재단을 산업교육센터로 지정하였으며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협력기관 및 전문가를 발굴·공유하며, 신기술분야 등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현황 종합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그동안 우리 대학은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기술은 고등교육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 간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개별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국내·외 대학,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대학의 노력과 혁신을 지원하여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공유성장형 고등교육 체계 구축과 뉴노멀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변화와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선도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전 사회적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우리 함께 배우자~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 30명 이상의 초등 1~3학년 학급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 약 2,000명을 활용해 기초학력(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학급을 증설하거나 하나의 수업에 두 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협력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기초학력을 진단·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배·이·스·캠프)'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해 두드림학교(5천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142개소)를 통해 학습지도와 정서 상담 등을 집중 지원한다. 그밖에도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운영, 컨설팅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한다.



EDUCATION NEWS

올해 수능 11월 18일 실시, EBS 연계 50%로 축소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시험 체제 개편
- 국어·수학·탐구 상대평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1월 18일(목)에 실시된다.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수능 시행 관련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를 도입해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국어 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으며 수학 영역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다.

사회·과학탐구는 영역 구분을 폐지하고 사회탐구 9개 과목, 과학탐구 8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절대평가를 적용해 성적으로 등급만 제공한다.

EBS 연계 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또한 과목 특성에 따라 EBS 교재 문항에서 다룬 소재, 개념이나 원리를 적용하는 간접연계로 출제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한편, 올해 수능에 앞서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DUCATION NEWS

교육부, 새 학기 2,703개교 방역 점검… 전체 74.3% 등교수업

교육부는 새 학년 학교 등교상황 및 방역 지원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3월 17일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74.3%인 약 441만 8천 명이 등교했으며, 유치원이 92.1%로 등교수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방역 점검 대상인 2,703개교는 방역 지침을 토대로 학교별 자체 여건에 맞춰 운영 중이었다. 방역 지원인력은 3월 3주까지 약 4만 3천 명(목표치의 80.6%)을 배치했으며, 장애학생 지원인력 3,445명 추가 배치를 추진 중이다.

개학 이후 원격수업을 실시한 6,242개교 중 62.2%(3,887개교)는 전체 원격수업 중 80% 이상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단독형+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교원이 원격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신 기종 노트북 등 21만 8천 대를 지원했다.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25만 6천 대를 대여했으며, 비축분 27만 6천 대를 활용해 스마트폰 보유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기기를 대여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별로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보완 및 특수학급 학습지원 등을 위해 초등 기간제교원 1,961명을 임용했다. 초등 고학년(4~6학년)과 중학생은 온라인 튜터 4천 명을 연계하여 대면·비대면으로 기초학력 보충지도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기숙사 내 코로나19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초·중·고·대학 총 100개교에 환경검체 검사를 신규 시범 도입한다. 기숙사 내 손잡이·문고리, 수도꼭지 손잡이, 벽, 조명스위치, 환기구·에어컨 등 환경검체 채취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환경오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선제적 검사다. 또, 4월 첫 주부터 특수·보건교사 등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그 외 교직원은 3분기 초, 고3 담당 교사 등은 방학 중 접종 가능하도록 방역당국 협의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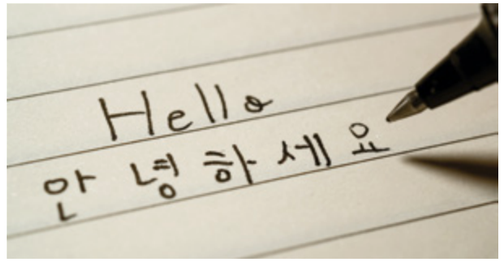
전 세계 43개국 1,800개교에 한국어교육 지원한다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올해 문체부·외교부와 협업예산을 통해 작년보다 약 2배 증가된 236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며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 세계 43개국 1,800개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현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한국어반 개설과 제2외국어 채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어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14개 교원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원어민 한국어교원 132명을 파견하고 현지 교원 4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한다.

한국어교육의 거점으로서 지난해 12월 신설된 말레이시아·하노이 한국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점교육원을 통해 인접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권역별 한국어교육 협력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현행 지필고사 방식을 개선하여 2023년에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전면 시행, 2022년 말하기평가 시행 및 문제은행 출제 방식 도입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휴대용 수력발전기’로 에너지 프로슈머를 꿈꾸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는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에너지, 연료전지, 수소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전력의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종도 미래 유망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휴대용 수력발전기를 개발한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 _ 양지선 기자

우리는 매 순간 전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그 중요성을 쉽게 느끼지 못한다. 마치 공기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일 테다. 하지만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는 우연히 떠난 인도 배낭여행을 통해 전력 인프라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이들을 겪었고, 필요한 전기를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이는 세계 최초 휴대용 수력발전기 ‘우노(UNO)’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얼핏 보면 텀블러처럼 생긴 ‘우노’는 흐르는 물속에 제품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접이식 터빈 날개를 펼쳐 강이나 계곡, 하천에 넣어두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며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에 저장한다. 4시간가량 충전 시 휴대전화를 두 번 완충할 수 있을 정도다. 이 간단한 개인용 수력발전기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가 될 수 있다.

친환경적 전력 생산 방법을 제시한 이노마드는 이제 단순히 제품 판매에서 나아가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 생산과 저장,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박혜린 대표는 “이노마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를 서비스로 만든 것”이라며 “사람들이 에너지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만드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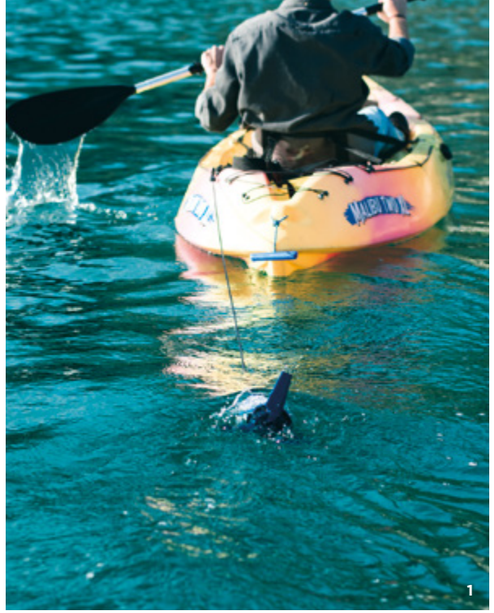
다음은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와의 일문일답.

하나, 창업을 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보통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창업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디어가 도출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학부 시절 에너지에 대한 문제 인식 후 캐나다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부산의 조류발전 플랜트 기업에 먼저 취직했다. 그곳에서 수력발전의 장점을 확실히 느꼈지만, 한계점도 발견했다. 에너지가 생산돼도 송전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여전히 전력 인프라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점이었다. 그래서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저장,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2014년 ‘에너지 유목민’이라는 뜻을 담은 이노마드를 설립하게 된 계기다.”

둘, 여성 CEO로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

“제조업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드물다. 일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여성 동료나 선배가 없었다. 업계에서는 여성이어도 남성성을 가진 리더를 원해서 이른바 국밥에 소주를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했다. 문제가 생기면 ‘여자가 대표라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선구안과 일에 대한 진정성, 꾸준함으로 리더십을 만들 수 있었다.”



1 휴대용 수력발전기 '우노'는 흐르는 물속에 제품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2 박혜린 대표는 2년 전부터 초·중·고·대학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을 해오고 있다(코로나19 이전 촬영).



셋, 학창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었다. 부모님께서 무척 자유로운 성향이셨는데, 그 덕분에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해볼 기회가 많았다. 한번은 소화기 사용법 영상을 보고 따라 하다가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는데도 혼내지 않으셨을 정도였다(웃음). 이런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진로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주도성,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 인도라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여행을 갔던 것도 큰 도전이었는데, 결국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넷,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은?

"이노마드가 처음 임팩트 투자(재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환경적 성과도 달성하는 투자)를 받은 건, 기성세대에게 없는 새로운 관점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이처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중요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다섯,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이제 주요 정책과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법제화된다. 환경보호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모든 활동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소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여태껏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도, 경력도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된다. 이는 다음 세대가 주도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섯, 올해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초·중·고·대학에서 교육을 해오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진로 고민이 많은데, 에너지가 IT 등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와 융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위주로 전달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진로교육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국사봉중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리를 담은 키트를 직접 만들어보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진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 문제가 생기면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질문하고, 뭘 해야 할지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하는 사람이 되자. 누구도 나 대신 살아주지 못하고, 내 문제를 나만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며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어른들이 정한 옳고 그름에 맞춰 살아갔다면, 이제 앞으로의 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뉴노멀의 시대가 됐다. '나중에 대학에 가면 뭘 해야지'가 아니라 당장 오늘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지금 1020 세대가 현재를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선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일을 사는 아이들에게 어제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

TIP BOX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TIP. 1 _____ 하는 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관련된 직업으로는 태양광발전 기술자, 풍력발전설비 기술자, 지열발전설비 기술자, 에너지공학 기술자, 전기공학 기술자,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스템 기술자 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소, 혹은 발전 시스템에 필요한 설비나 장치들을 개발하고 생산·운영하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

TIP. 2 _____ 준비 과정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신재생에너지학, 전기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 에너지관리학, 태양광공학, 에너지자원공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과, 전기과 등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전기 관련 교육기관, 신재생에너지 관련 단체나 협회, 대학교의 에너지 관련 센터 등에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훈련 과정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원리 및 종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설비 구성과 운전, 고장 사례 등에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배울 수 있다.
전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공사 기사/산업기사 등의 국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TIP. 3 _____ 적성 및 흥미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는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결국 자연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한 일이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야 하며, 전기를 만드는 기계 장비나 측정 도구를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기계·기구를 만들고 조작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 참고: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시간의 자수가 교차하는 땅,

평창 平昌

전나무 잎이 바람을 연주한다. 그윽하고 잔잔하다. 눈을 밟으며 찾았던 숲에 봄기운이 감돈다. 몽우리를 터뜨린 새싹의 속삭임을 벗 삼아 들어선 오대산 초입, 늘씬하게 뻗은 전나무를 올려다본다. 촉촉한 흙내음이 코를 타고 들어온다. 폭신하고 몽글거린다. 커튼을 걷듯 겨울을 걷어내며 투명한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문을 넘어섰을 뿐인데 마치 다른 세계로 건너온 듯한 청량감이 발을 타고 올라온다. 코를 지나온 평창의 싱그러운 봄이 폐부를 거쳐 온몸으로 퍼져 나간다. 4월이다, 그리하여 이윽고 봄이다. 이 찬란한 계절에 평창을 찾는다.

글 _ 강지영 객원기자

바람과 발소리가 전부인 숲을 걷는다.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지난 시간을 되돌려 본다. 침묵을 머금는다. 소리를 내놓지 않는다고 소리를 잃은 것은 아니었을 터.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벽 삼아 나를 그리고 너를 위한 마음을 지켜온 시간이 발자국이 되어 찍힌다. 천 팔백여 그루 전나무가 고적한 여행길의 든든한 벗이 되어 안긴다. 부처님 공양 그릇에 눈(雪)을 떨어뜨려 벌을 받게 된 소나무를 베고 전나무 아홉 그루로 절을 지키게 했다는 숲길의 유래를 곱씹으며 금강교에 이른다. 월정사가 눈앞이다. 다리를 지나 대웅전에 이른다. 대웅전 마당을 지키고 선 팔각구층석탑과 손을 모아 앉은 석조보살좌상.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재단한 듯 놓인 지상의 사물을 내려다보고 있다.

월정사 전나무 숲길



정생포 고래문화마을

등을 보이며 앉은 석조보살좌상과 석상을 응시하고 있는 대웅전과 고개를 든 석탑.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더없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벽을 친구삼아 살아야 했던 날들을 지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상원사에 담긴 세조 이야기

상원사로 간다. 문수보살을 만난 이후 왕이 되었다는 신라 성덕왕이 지었을 당시의 상원사 이름은 진여원이었다. 이후 진여원은 상원사가 되는데 여기에는 조선 세조의 이야기가 서려 있다.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꿈에서 자신을 저승으로 데려가려는 현덕 왕후를 만난다. 세조가 버티자 현덕 왕후는 세조에게 침을 뱉는데 이후 세조는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병을 고치려 전국을 돌아다니던 세조는 상원사 앞에서 목욕을 한다. 그 과정에서 동자승이 세조의 등을 밀어주고 알몸을 보인 것이 마음에 걸린 세조는 동자승에게 왕의 알몸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자 동자승이 말한다. 문수동자를 만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러한 이유로 상원사에는 문수동자상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상원사 초입에는 세조가 옷을 걸어둔 곳이라고 하여 관대걸이가 자리하고 있다.

상원사로 들어간다. 문수동자상이 자리한 문수전 앞에는 고양이 석상이 있다. 상원사 법당에 들어서려던 세조를 막아 세워 목숨을 구해준 고양이를 위해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경내를 돌아 나와 동종 앞에 선다. 몇 구 남아 있지 않은 신라 동종 중 가장 오래된 동종인 상원사 동종은 안동루에 있던 것을 세조가 옮겨온 것이다. 동종에는 국태민안을 바라는 왕의 염원이 깃들어 있다. 유리 속 종과 그 옆에 놓인 모형에서 시대의 화음을 읽는다. 속으로 우는 신라 동종과 소리 내 눈물 흘리는 모형 동종. 울림은 다를지라도 나라의 평온을 바라는 그 마음은 하나일 것이다.

월정사 적멸보궁에서 느낀 비움과 채움

월정사를 거쳐 상원사에 이르렀으니 진신사리를 봉안한 적멸보궁을 놓칠 수 없다. 적멸보궁으로 방향을 잡는다. 월정사 적멸보궁은 진신사리를 안치한 곳이라는 뜻의 적멸보궁(寂滅寶宮)을 처음으로 사용한 곳으로, 오대산에 머물던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에게서 직접 받은 부처님 사리라는 설이 깃들어 있다. 진신사리를 봉안했기에 불상을 안치시키지 않는다는 적멸보궁. 비워진 불단에서 채움을 본다. 비어 있는데 충만하고 가득한데 성기다. 봄바람이, 쥠은 비움에서 오고 비움은 쥠에서 오는 것이라는 깨우침을 놓고 간다.



1



2

1 성보박물관
2 이효석 문학의 숲
3 월정사

길을 돌아 나와 이른 곳은 의궤박물관과 성보박물관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의 역사에 기반해 설립된 의궤박물관은 106점의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다. 발길은 왕실 행사를 그려낸 의궤의 색감과 정치한 묘사를 따라 조선으로 들어갔다가 어느새 성보박물관에 이르러 있다. 4,000여 점의 성보(聖寶)가 있는 성보박물관에서 월정사의 석조보살좌상 원본과 문수동자상, 적멸보궁 진신사리와 세조의 피부병 흔적이 남은 명주 적삼을 만난다. 평창 곳곳의 역사가 한곳에 모여 시간의 샘을 만들어내고 있다. 샘의 울림이 가슴을 두드리고 들어온다.

이효석 작가의 숨결이 깃든 문학의 숲

숨을 돌려야겠다. 차로 삼십여 분을 달려 이른 곳은 '이효석 문학의 숲'이다. <메밀꽃 필 무렵>을 테마로 만든 숲에는 이효석 작가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장터를 지나 충주집을 거쳐 물레방앗간과 디딜 방앗간을 지나온다. 펜의 힘에서 비롯된 것인지 생의 구슬픈 서사가 자아낸 것인지. 발길을 내려놓은 곳곳에서 흐드러지게 핀 허연 메밀꽃과 누렇고 투명한 달빛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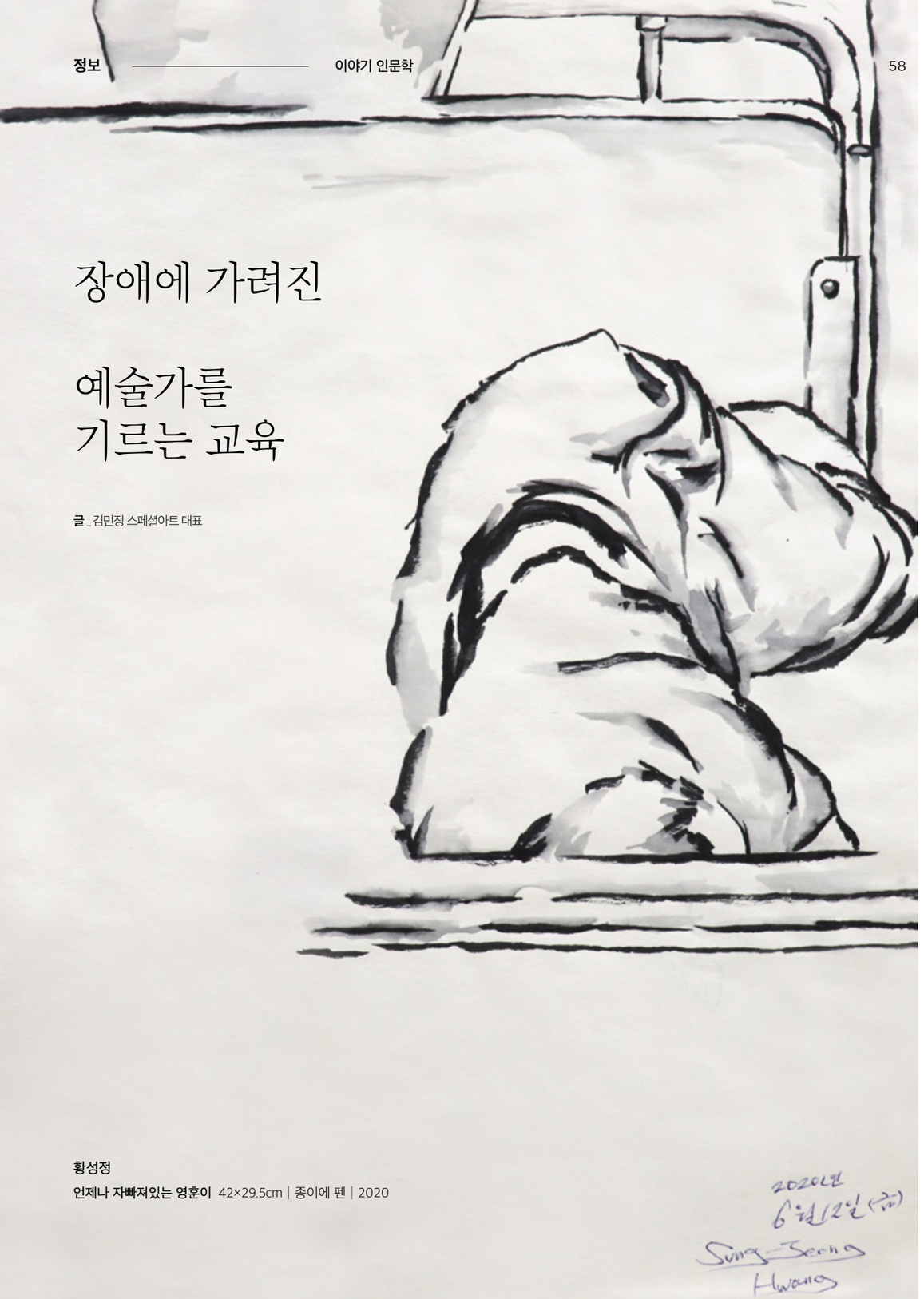
숲 향에 물들어, 문학에 취해 거닐다 보니 숲을 벗어날 즈음에는 이효석 작가의 표현처럼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 있다. 해는 산을 넘어가고 평창은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평온함을 전해오고, 집으로 돌아가는 외길에서 메밀꽃 필 무렵의 '외줄로 늘어서 가는' 세 사람의 그림자를 만난다. 좁은 길 위에 메밀꽃이 놓이고 계곡이 덧대지더니 전나무 잎이 하늘거리기 시작한다. 그 위로 종소리가 완만한 타원을 그리며 퍼져 나간다.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의 자수가 한 땀 더 더해진다.



3

장애에 가려진 예술가를 기르는 교육

글 _ 김민정 스페셜아트 대표



황성정
언제나 자빠져있는 영훈이 42×29.5cm | 종이에 펜 | 2020

나에게는 나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외삼촌이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분노가 많았고,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으나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남들과 너무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어 항상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삼촌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삼촌이 아팠다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데 오래 걸렸다.

한 달에 두 번 삼촌을 면회하러 갈 때면 삼촌은 시조를 읊어 줬고, 하모니카를 연주해줬다. 긴 병원 생활로 무서움과 애잔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삼촌을 기리는 사람은 5명이 채 되지 않았다.

내 기억 속에 오래도록 머무는 하모니카 연주와 시조들은 그 어디에서도 기록으로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잘 만나지 못했던 이들의 예술적 기록…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삼촌의 영향이었을까.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았다. 힘들어하던 우리 외삼촌, 그를 바라보는 우리 외갓집 식구들. 그 누구 하나 즐겁게 웃지 못했던 듯하다.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의 가족들은 노심초사했고, 매달 내야 할 병원비에 책임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미안함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미술을 전공한 후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그림, 사람들의 마음을 표출할 그림, 나아가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했다.

나는 그렇게 미술치료사로, 장애 문화예술 기획자로 일을 하게 되었다. 정신장애나 중증장애인과 가까이할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들과 마주하며 그들의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고, 가시화하고 남기는 일들. 나는 장애 문화예술이 '이름과 흔적을 남기는 예술'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관계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일을 통해 나는 장애인을 넘어 한 명의 고귀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애라는 그늘에 감춰졌던 놀라운 능력과 예술성을 만나게 된다. 그것들에 대한 기록과 그것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한다.

> 66
> 이 일을 통해
> 나는 장애인을 넘어
> 한 명의 고귀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 그리고 그 사람의 장애라는
> 그늘에 감춰졌던 놀라운 능력과
> 예술성을 만나게 된다.
> 99

장애가 예술로 꽃피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미술치료사로 근무할 때, 발달장애 아이들의 놀라운 감각을 느끼고 재능육성반을 꾸렸다. 고작 초등학교 4학년이자 장애 1급이었던 소연이는 놀라운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가 늘 지적받았던 상동 행동은 또 다른 예술로 꽃피어졌다. 소연이는 늘 손등에 무언가를 두드리고 냄새 맡는 행동을 했고, 물감 색을 바꿀 때마다 붓을 두드리고 냄새 맡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진행됐다. 결국 그것은 아이만의 '점묘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의 미각과 후각의 기억을 꽃피우며 예술적으로 승화

시켰다. 작가로 잘 성장한 소연이는 올해 초 상하이에서 열렸던 초대 개인전에서 완판의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취미 그 이상의 직업으로서의 가능성

미술반 친구들 속에서 미술적 능력으로 박수받았던 한 친구가 직업 재활 교실에서 정확한 요구를 수행하지 못해 핀잔을 들을 때 몹시 속상했던 기억이 난다. 오히려 그림을 판다면 더 즐겁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장애인들에게 '미술'은 직업적 연관성이 없는 '취미' 혹은 '치료'라는 관점이 팽배했기에,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보았다. 미술 활동이 아닌, 전문작가가 되기 위한 미술, 곧 그것이 직업 재활 관점 그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전략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시작한 스페셜아트는 발달장애 예술인 16명을 최저시급 이상을 받는 대기업에 예술인으로 취업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예술을 통한 관계의 확장

우리 삼촌과 굉장히 닮아있던 황성정 작가님은 10년이 넘는 시간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계신다. 사고로 인해 뇌를 많이 다치고 기억장애를 동반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림이라는 매개로 회복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였다. 일차적으로 병원 안에서 그림을 통한 매일의 기록이 기억력을 눈에 띄게 호전시켰고, 이차적으로는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이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병원 내 사람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되었다. 또한, 매년 전시를 통해 소식이 끊겼던 입시 시절의 친구와도 연락이 닿았다. 정신과 병동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격리되어 온 긴 시간이 미술을 매개로 끊겼던 관계와 새로운 관계들이 다시 맺어지고 확장되었다.



이소연
Memory of food series.2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행복한 교육'

장애인들이 행복한 교육은 무엇일까? '행복'을 목적에 두지 않았지만, 적어도 장애예술인 개개인 고유의 정체성과 예술가적 존중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리고 그들의 '전문성'에 집중했다. 나는 그들의 표정에 행복을 유추할 수 있는 감정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들이 예술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장애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은 스스로 질적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발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확인시켜주는 조력자가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변화는 이분법적이지 않다. 변화는 과정의 연속이며,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계를 단정 지을 수 없다.

완성된 작품에 사인을 남길 때 우리 작가들의 표정이 눈앞에 그려진다. 그들은 그저 예술인이다. 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교육이 필요하며, 우리는 스스로 질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 예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지지할 팬심을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스페셜아트와 소속 작가들은 장애인의 달을 맞아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영갤러리에서 '헬로 스페셜아트!' 전시로 여러분들을 기다린다.

FOCUS 01

2021년 <행복한 교육> 온라인 명예기자 위촉식 개최

교육정책 알리고 현장 소식 전하는 55명의 기자단 출범!



2021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명단

강은아, 강호섭, 곽우은, 구영목, 권혁기, 김경민, 김광일, 김민중, 김영근, 김자윤, 김진원, 김한나, 나건식, 노호룡, 문승욱, 문윤미, 박대성, 박도제, 박선미, 박소영(경북), 박소영(부산), 박영현, 박정수, 백희, 성공주, 성완, 신종원, 심규성, 안지민, 양만주, 양주희, 양지훈, 엄장수, 오현주, 유연상, 육태균, 윤중필, 이경화, 이대송, 이동우, 이명주, 이윤정, 이정걸, 이정민, 이하성, 조동욱, 조선영, 진미경, 최주현, 최혜정, 최홍길, 하헌우, 한은경, 홍지희, 황인술

교육부는 기관지 <행복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갈 명예기자단 55명을 선발하고, 지난 3월 31일(수) 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위촉식에는 임용빈 홍보담당관 등 명예기자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임용빈 홍보담당관은 "코로나19로 교육현장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소식을 발굴하고, 교육정책을 국민께 알리는 가교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선발된 55명의 명예기자단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2월까지 1년간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9년째 활동 중인 최장수 명예기자 양지훈(안산공고) 교사와 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유연상(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연수원) 파견교사가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으며, 사례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FOCUS 02

작은 우표를 이용한 행복한 수업

이정걸 _ 명예기자(호저중학교 교사)

아기 손바닥보다도 작은 우표를 가지고 수업을 해 본다면 정말 편리하다.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표에서 얻은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많다."라고 했다. 이처럼 우표에는 인성, 다문화, 역사, 발명, 과학, 사회, 농업, 수학, 성교육 등 모든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표를 도구로 하여 수업에 적용해 본다면 교사도 학생에게도 유익하면서도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 있다.

수업 재료로 A4용지, 우표 개인당 1장, 색연필, 가위, 필기구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할 수 있다. 우표는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우표를 선택하면 좋다. 중학교 2학년 과학 1단원 물질의 구성(원소, 이온) 수업 시 원소 관련 우표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우표를 이용하여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지식의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모든 학생이 시간 가는 줄 모른채 꾸미기 활동에 빠진다. 이 수업에서는 1등도 꼴등도 없고 누구나 자신의 과학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므로 모두가 만족하는 수업이 된다. 작은 우표 하나에 무궁무진한 수업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저중학교 2학년 손선주 학생은 "미래에 나만의 원소를 발견하게 된다면 세계 인류를 위해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학생들도 "라돈(Rn) 폴로늄(Po) 원소기호를 발견한 퀴리부인처럼 노벨상을 타게 된다면 전액 인류를 위한 기부를 하겠다."라고도 하였다. 학생들의 신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 쏟는 즐거운 수업이다.

또한, 스티커 우표를 이용하면 가위나 풀이 없어도 된다.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대상 우표 관련 연수를 받고 난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스티커 우표를 무료제공 받아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우표 활용 수업은 지식은 물론, 인성교육과 창의성까지 발현되는 수업이다. 모든 초중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FOCUS 03

대구교육박물관, 역사 체험의 기지개를 켜다!

권혁기 _ 명예기자

"이것은 조선시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문화재가 소개될 때마다 초등학생들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지난 3월 17일 대구교육박물관(관장 김정학)에서 진행된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모습이다. 이 박물관에서는 매년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체험학습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1년간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교육박물관 현장체험학습은 지역 내 학교 사이에서 이미 소문난 인기 프로그램이다. 전문 해설사가 진행하는 전시 관람, 현직 교사가 지도하는 체험활동 등 양질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육의 역사'를 다루는 이 박물관의 전시물들이 학생들에게 친근감과 흥미를 쉽게 불러일으킨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문화재를 살펴보며 지역의 역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를 갖는다.

교육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임에도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활동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체험학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을 고려한 다양한 준비를 하였다. 학생들은 체험학습 장소로 출발하기 전과 도착 후에 이중으로 발열 점검을 받았다. 체험프로그램의 내용과 방식을 개별 활동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하였다. 점심식사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오전 프로그램으로 체험 시간도 조정하였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기존에 학생들에게 제공하던 점심 도시락을 간식과 기념품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박물관은 각 학교의 담당교사들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실시간 화상 협의회를 지난 3월 10~11일 양일간 진행하였다. 김정학 관장은 "의료진과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소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어렵게 재개된 체험학습인 만큼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습과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역사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1981년에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시행령>이 제정됐으며 초등학교 급식은 1993년부터 크게 확대되어 1998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고등학교 급식도 200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초중고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됐고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균형 잡힌 성장, 건강한 식습관까지 책임지는 학교급식은 '밥 한 끼'의 의미를 넘어 '교육급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균형 잡힌 건강한 한 끼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학교급식의 도입으로 영양사, 급식조리원 등의 학교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친환경 우리 농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면서 농촌을 지키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가정경제에 간접적인 지원 효과가 있으며, 모두가 평등하다는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무상급식이 학생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했는데, 행동사고 특히, 학생 간의 신체적 싸움을 35% 줄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무상급식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2007년 경남 거창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재정 등의 사정으로 지자체별 도입 시기는 제각각이지만 2018년 강원, 전남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이 이뤄져 올해에는 서울, 인천, 대구까지 초중고 무상급식을 완성하면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 급식을 공교육에서 책임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육부